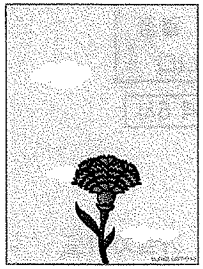
◀하나님! 나의 하나님▶

어 머 니

김 성 국



요즘 들어 꿈에서라도 어머니 얼굴 뵈오려 잠을 청합니다
몇 일전, 무엇을 찾다가 문득 나온 어머니 장례식용 사진.
가난했지만 굳이 감추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엔
각자의 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
모두 한 방에 모여 내가 노래 부를 때 웃으시던
그 미소가 거기에 있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얼른 넣었습니다.

어머니, 한번만이라도 꿈속에 나타나 주셔요
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응어리져 고개 못들고 지낸 일,
하늘 끝에 찾아가서라도 용서 받아야 할 일이 너무 큽니다.

수련장 사달라는 때부림에 없는 돈 어찌 하지 못 하는 어머니의 탄식
철없이 그 탄식 받지 않고 울면서 학교 길 나섰을 때
제 뒤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어요?

기성회비 못내 학교 오셔야 했던 그 행차 길
차라리 공부 못해 불려 가는 길이라면 덜 부끄러우셨을 테지요
그때 어찌 고개 들고 교무실에 들어가셨어요.

그 몹쓸 치매에 걸려 고생하실 때
은혜 갚을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난 이렇게 기도했지요
'하나님, 이제 어머니 편하시도록 데려가셔도 하나님 원망 안 할께요'
그 기도가 정말 어머니를 위한 기도였다면
이렇게 응어리가 크진 않을 거예요
순전히 나 편하자고 한 기도였던 것 아시잖아요

어찌 이런 것들이 한 번 꿈에 만나는 것으로,
어찌 이런 것들이 철없음만으로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
어머니! 그래도 제발 오늘 꿈에 한번만 나타나 주셔요.
이번 한번만 꿈에 오시면
그때 일들을 용서해 달라고 수천 번도 더 말할게요.

이제는 궁색했던 목사의 아내로 안 오셔도 되잖아요
철없는 아들의 어머니로 오셔서
저의 용서와 응석 받아 주셔요.
그래야 이번 어머니날도 산소에 가서
사실은 한번도 불려보지 않은 '어머니' 라는 어색한 떨림보다는
평소처럼 "엄마" 라고 목놓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

◀그땐 그랬지▶ 선데이 서울

지금의 스포츠 신문이나 주간신문들 보다도 못한 내용이었지만 그때는 당대 최고 선정적 잡지였습니다. 대부분이 지어낸 이야기거나 부풀려 만든 스토리임을 알게 된 것은 그리 커진 뒤가 아니여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.
반에서 가장 날날이라 눈총받던 아이들이 자랑삼아 가방속에 가지고 오면 돌려가며 보던 시절, 이젠 의젓한 교회 중직자들이 된 친구들을 만나면 사춘기의 몸살은 앓았지만 그래도 그런 일로 철없이 함께 지낸 시절이 아름답기만 합니다.

교회 목표	'2004년 교회생활:"배보 같은 교회"	교회생활지침
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	**갈 보 리 교 회** *Calvary* Presbyterian Church	누가 10:37 *자원함 -섬김과 봉사 *익명성 -명예
제6권 19 호	기초성경공부이수. 정장으로 예배. 남 이야기 금지	2004년 5월 9일

☎520-9464. 369-5077. 71 Khyber Pass Rd.(The Church of Holy Sepulchre) calvary.byus.net

오 해

작자미상

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

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
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우리가 엄마에게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.
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.

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 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,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.
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.

◀남편 기 살리는 말▶
"내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봐요 "
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"어떻게 어머니하고 똑같아요?"

◀아내 기 살리는 말▶
"당신은 애들 키우는 데 타고난 소질이 있나봐. "

◀기 죽이는 말(절대 해선 안될 말)▶
"애들이 웃겠다 "

주 일 예 배

- 어머니주일 -

(*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)

영 광 송 Gloria	Calvary	다 같 이

어머님의 은혜

1.당신은 이 세상 최고의 어머니입니다 - 남성성가대(높고높은)
2.엄마 - 여성성가대(보일듯이)
3.어머니도 소중한 딸 이었습니다 - 윤영전 집사(어머님 은혜)
4.늙지 마시라 - 성가대 (304장 1,4절)

기 도 Prayer		정희자 권사
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	이사야 49:14-15	인 도 자
성가대 찬양 Choir		나무십자가성가대
설 교 Sermon	하나님의 모성애	김성국 목사
특 송 Hymn		박경주 집사.최은수
헌 금 기 도 Offering Pray		인 도 자
응 답 송 Response Song	'높고 높은 하늘이라' (1,3절)	다 같 이
축 도 Benediction		김성국 목사

(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)

◈ 5월의 예배위원◈

일자	기 도	헌금위원	설것이
2	정덕수	변민강	11구역
9	**정희자**	**신미숙**	**1구역**
16	장현중	신영화	청년부
23	지찬영	양경배	2구역
30	최재학	유병민	3구역

' 2004년 교회표어
"바보같은 교회" (창6:22)
*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. 그래도 살아본다
*누구나 평등하다.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

*3주간 예배,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
*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

주일예배: 낮 12시	수요예배: 저녁 7:30	아동.학생부:주일 낮 12시	청년부:토 저녁 6시

1.교우소식 <이사> 한정옥 집사.규정.규형
☎ 575-7456 ✉ 39 Esperance Rd. Glen Dowie

2.오늘은 "어머니주일"로 지킵니다
*어머닝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... 오늘 저녁은 자녀들에게 어머니 은혜 가르치기도 할 겸, 저녁식사 준비에서 해방 시켜 드림이 어떠신지요?

3. "믿음의 어머니 기도회" 10일(월) 오후 1시 Hall
*건강도,경제상황이 좋지 않음도,자녀들의 앞날도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필요한 때 입니다.

4. "교육관건축헌금"
*본 교회에서도 분주히 도면설계와 자금조달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. 자녀들을 위해 훌륭한 교육관이 건축되어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

5.다음주일은 '은 십자가 성가대' 찬양. <제2남선교회원>
*50여년을 닦아온 중후한 인품만큼 쌓여진 믿음의 깊이에서 울리는 찬양.....

6. 새벽기도회 <매주 금요일 6:00am>
*일주일에 한번쯤은 긴장감을 갖고 잠드는게 건강에도 좋을 듯합니다.

7.2003년 재정보고. <금주 수요예배 후>. 등록교우는 모두 참여하여 우리교회의 재정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

8. 감사의 편지가 왔습니다
*지난번 수해복구지원헌금을 보내 드린 Bulls의 Wheriko Church에서 고마움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. 알고보면 우리의 작은 사랑을 받아준 Wheriko Church에게 우리가 더 고마운 마음이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좋은 환경에 살도록 꾸며준 뉴질랜드의 선조들께 감사하지요. 베풀 수 있도록 여건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.

9. 헌금 Tax Refund를 위한 Application Form이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
작성하셔서 헌금증명서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

◀착한 시인들▶ 마 중

김용화

비가 오는 날마다
할머니는
삼거리까지 마중을 나오셨다
세 시 차가 있고 다음은
다섯 시 반이었다
헌 우산은 쓰고
새 우산은 접고
세 시 차에 안 오면 다음 차가 올 때까지
비에 젖어
신작로에 그대로 서 계시었다
집에 좀
잠자코 계시라고
어머니는 늘 성화셨다

어머니의 어머니는 또 한분의 어머니이십니다. 손주 입 데일까, 목에 걸릴까 뜨거운 밥을 당신 입에 넣으셨다 손주에게 먹이시는게 꼭 어미 제비가 새끼들 먹이는것과 어찌 그리 닮았는지요. 그래서 사랑은 본능인가 봅니다?
하늘아래 그런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?
사랑은 영원한 대물림인데 어째 나는 받은 만큼 못 대물려 주고 있는 것같아 초조하기만 합니다.
흉내 내기도 버거운 어머니의 사랑, 아버지의 사랑....